

## 올해 남해군 관광객 500만 넘었다

지난달까지 500만7758명 집계  
작년 총방문객보다 10% 많아

기사입력 : 2022-11-09 20:10:22

‘방문의 해’를 맞은 남해군을 찾은 관광객이 올해 500만명을 넘어섰다. 군 자체 집계와 달리 한국관광공사 집계는 9월까지 673만명을 돌파했다.

남해군은 올해를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에 집중한 결과, 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남해를 찾았다고 9일 밝혔다.

군은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독일마을 맥주축제’ 등 킬러 콘텐츠가 성황을 이룬 것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풀이했다.



남해군청에 세워진 관광객 방문 현황판. 올해 방문객이 500만7758명으로 표시돼 있다./남해군/

방문 관광객은 남해군 주요 관광지의 무인 계수 및 입장객 대표 수를 집계한 자체 통계 자료이다. 이를 기초로 10월 말 현재 500만명(500만7758명) 방문은 전년 동기(409만2517명)보다 23%가 증가한 것이다. 2021년 총방문객 수 459만6809명과 비교해도 10%가 늘었다. 특히 남해군 방문객 전체를 집계하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방문객 수는 673만여명으로 나타났다.

남해군은 관광객이 증가한 요인으로 △양방향성 매체 SNS(소셜 네트워크 시스템)를 활용한 선제적인 관광 홍보 △군민 대상 수용 태세 개선 교육을 통한 관광 분위기 개선 등을 꼽았다.

또,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이 남해군의 관광객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남해군 관광문화재단에서 진행한 팸투어, 스탬프 투어, 바래길 작은 음악회, 광역시티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많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올해부터 다시 대면 행사로 개최된 미조 멀치축제, 보물섬 마늘&한우축제, 독일마을 맥주축제 등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한강 작가의 참석으로 화제가 된 김만중 문학축전, 남해안 남중권 교류협력 행사,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등 '남해군 방문의 해'를 기념해 개최한 다양한 행사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중구 남해군 관광진흥과장은 "올해 남은 기간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따뜻한 남쪽 여행을 준비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남해로 향할 수 있도록 겨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문 기자 [bmw@knnews.co.kr](mailto:bmw@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이병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Powered by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Taboola 후원링크

**뱃살을 빠르게 없애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 검색 광고

**한 남자가 임신한 아내를 촬영하고 뒷배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팁과 요령

**서민 1인당 "1억원" 생계자금지원.. 나만 몰랐네!**

서민플랜 | 대출

**고현면: 치과 임플란트 비용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치과 임플란트 | 검색 광고

**생각보다 저렴할 수 있는 2022년 침대 매트리스, 거실 매트리스 가격**

매트리스 | 광고 검색

**사진작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암사자 - 이유를 알고 충격을 받은 사진작가**

SmartWorldMag

**세계 최고 부자들의 부인과 여자친구들**

Bibimbang

**구매예약 줄줄이 Z 플립4 할인 특가 9만9천원**

Get Phone